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異本) 비교

Comparison with the Alternative Versions of the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송 정 숙(Jung-Sook S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각편의 구조 분석 |
| II. 전래동화의 성격 | 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비교 |
| III. 전래동화의 구조 | 1. 각편의 비교 |
| I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분석 | 2. 원문의 비정(比定) |
| 1. 각편의 줄거리 | VI. 결론 |

초 록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전래동화는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즉 어느 책의 본문이 가장 좋을지가 늘 의문이었다.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으로 원문서지학의 연구방법으로 문헌을 비평하였다.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 6편을 대상으로 줄거리 파악을 통해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목, 배경, 등장인물, 문체, 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6편의 이본 가운데 어효선본의 본문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어효선본에서 조력자인 옥황상제를 하느님으로 바꾸고, 문체를 구어체로 바꾸며,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서로 바꾸는 마지막 장면을 삭제한다면 이상적인 원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문서지학적인 연구가 축적되고, 이러한 역량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사서가 내용, 즉 콘텐츠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제어: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 이본 비교, 원문서지학, 기능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text of six alternative versions of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So the author took a textual bibliographical study of those version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itles, backgrounds, characters, styles and functions of them.

On the basis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version of Hyo-Sun Eu was selected as a good text. In the version of Hyo-Sun Eu, if the helper in the story, King of Heaven represented in the form of Taoism would change into Heaven represented in the form of God, and the literary style change into the colloquial style, and the last scene that the Sun Brother turns to the Sun Sister and the Moon Sister to the Moon Brother would be removed, this version will be the best one.

Key Words: Korean Fairy Tale, <The Sun and the Moon>, Textual Bibliography, Comparison of Alternative Versions, Functio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 접수일: 2005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가 동화라면 모든 창작동화의 어머니는 옛이야기인 전래동화이다. 독일의 괴테는 내가 인생에서 불변의 법칙을 배우게 된 것은 슈트라우스베르크 대학에서가 아니라,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던 옛날이야기 속에서였다고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는 <모모타로[桃太郎 : 복숭아 도령]>¹⁾인데, 1915년에 출판된 이와야[嚴谷小波]의 『모모타로의 교육신문』을 국민정신교육의 근본으로 삼은 이후, 이 동화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모모타로 노래까지 나와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동화로 숭상되었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진보적 문화인들은 ‘모모타로 말살운동’을 벌였다. 이 이야기가 일본인을 호전적·침략적인 자본주의·제국주의자로 만들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²⁾ 이처럼 전래동화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린이에게,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화작가로 유명한 그림형제는 1837년에 “인간의 상상력은 동화를 통해서 모든 제한과 제약을 넘어서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했다. 동화는 놀라운 것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성향에서 생겨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현실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을 뛰어넘고, 그리고 완고한 합목적성과 진부한 유용성의 사고에 정면으로 반항한다. 상상력이 있는 곳에는 종종 극단적인 요소들이 공존한다. 하지만 동화의 세계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은 그저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시대를 반영한다. ‘동화’라는 단어가 독일어의 ‘maere(소식, 기별)’에서 기원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³⁾

전래동화는 옛날부터 구비전승되어 왔으며,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구전설화를 재창작한 것인데, 설화 즉 이야기를 구연하는 사람은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을 더해서 전달하므로 다양한 각편이 존재한다. 텍스트가 유동적인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재창작된 전래동화 역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게 된다. 사서나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전래동화책을 선정할 때 같은 줄거리의 다양한 책이 존재하므로 어떤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원용한 연구방법은 원문서지학의 연구방법으로 마스(Paul Maas)가 19세기 독일의 문헌학자인 라흐만(Karl Lachmann)의 문헌비평의 2단계법인 ‘음미’와 ‘개량’을 좀더 세분화한 문헌비평의 5단계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헌이 전래하는 것일까를 조사하여 ‘음미’한 다음, 전래하는 문헌이 과연 원본적일가의 여부를 분석하는 ‘시험’에서, 원본적인 것을 ‘예측’해서, 그것 중 바람직한 문헌을 ‘선택’하면, 원문이 ‘개량’된다는 것이다.⁴⁾ 전래동화는 작가가 창작한 원본에 바탕

1) 줄거리는 복숭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가 도깨비섬을 정벌하고 보물을 약탈하여 오는 무용담으로, 일본 에도(江戸) 초기에 완성되었다.

2) 손동인, “한국 전래동화의 상민성 고찰,” 국어국문학회 편, 설화연구(서울 : 태학사, 1998), p.46.

3) 요아힘 발터, “산책으로의 초대,” 김재혁 역, 환상의 정원(서울 : 책세상, 1994), pp.4-5.

4) 류탁일, “문헌비평의 방법,” 한국문헌학연구(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9), pp.418-419 참조.

을 두었다기보다는 공동작인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재창작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전래하는 이본들 가운데 어느 문헌이 원본적일까를 분석하기보다는 어느 문헌이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바람직한 문헌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 6편을 대상으로 줄거리 파악을 통해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목, 배경, 등장인물, 문체, 기능을 비교분석한 후, 이본들 가운데 바람직한 원문을 선택하고, 원문을 개량하여 이상적인 원문을 비정(比定)⁵⁾해 보고자 한다.

II. 전래동화의 성격

설화 중 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을 전래동화라 한다면, 전래동화는 설화의 일부이고, 설화는 구비문학의 한 분야이다.⁶⁾ 구비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구비문학은 말로 된 문학으로서 말로 존재하고, 말로 전달되고, 말로 전승되는 문학이다. 둘째, 구비문학은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 등으로 이루어진 말하는 방식이 문학적 표현의 목적에 맞도록 조직되는, 즉 구연(口演)되는 문학이다. 셋째, 구비문학은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공동작의 문학이다. 구연은 있는 것의 전달이 아니라 창작이기 때문이다. 넷째, 구비문학은 공동작이므로 단순하고 보편적이다. 다섯째, 구비문학은 민중의 생활, 경험, 의식,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민중적이며, 따라서 민족적인 문학이다. 이처럼 구비문학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이기에 생활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지닌 문학을 사실상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래동화와 설화가 동일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래동화는 설화에서 출발한 ‘어린이용’ 이야기로서 구전설화의 재창작품이다. 근대 이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 즉 옛이야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를 기점으로 어린이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어린이관이란 어린이의 본질이나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말한다. 이는 문화에 따라 다르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양육 및 교육, 처우 등을 결정하는 직·간접적인 기초가 된다.⁸⁾

5) ‘비정(比定)’은 ‘어떤 미상(未詳)의 물체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물체와 비교하여 그 성질을 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본을 비교함으로써 이상적인 원문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복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작가가 존재하고, 그가 쓴 원본이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신서지학에서 셰익스피어 연구는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셰익스피어가 쓴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 정본이고, 과학적인 탐사를 통해 원본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종숙, “Henry V와 Shakespeare의 미중적 관점들 : 서지학/원문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위하여”, 셰익스피어비평(한국셰익스피어학회) Vol.23(1993), p.211) 그러나 전래동화의 바탕이 되는 구전설화는 작가가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작가가 쓴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텍스트가 유동적이다. 전래동화는 유동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재창작했기 때문에 전래동화에도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양한 이본들을 비교분석하여 이상적인 원문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복원’보다는 ‘비정’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6) 구비문학에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가 포함된다.

7) 장덕순 등, 구비문학개설(서울 : 일조각, 1988), pp.14-15.

서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는 『아동의 세기(Centuries of Childhood)』에서 어린이시기의 독자성에 대한 관념이 17세기를 전후하여 결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세 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는 단지 작은 인간, 즉 ‘축소된 어른’으로 이해될 뿐 어린이 시기의 독자성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자본주의의 발달로 부르조아 계급의 형성과 더불어 도시사회에서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어린이시기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다. 중세의 절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은 다시 사회 속으로 규율화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가족이 등장하였고, 그 가족 속에서 어린이들이 바로 한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아이들을 위한 의상, 놀이, 교육적 실천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⁹⁾

조선시대의 어린이관은 장유유서(長幼有序)에 기초하여 어른에 대한 복종과 예의를 절대덕목으로 삼았다. 그러한 어린이관은 한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선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으며, 획기적인 변화는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말에서 ‘이’라는 접미사는 늙은이, 높은이, 착한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어린이를 “어린이아이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 방정환은 ‘아이’라고 하면 귀찮고 천해 보이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을 듯한 생각이 들지만, ‘어린이’라고 부르면 왠지 그들이 존귀하고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고, 언어의 힘은 총칼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그는 일제하의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이자 인식전환운동으로서 ‘어린이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 사람들을 터춤패감으로 믿고 거기다 정성을 바쳐야 새 운수가 온다”고 역설하였다. 당시 일제의 통치는 어린이들에게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력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1920년대 이후 아동노동자수는 급증하였으며, 아동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노동재해, 질병,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소년운동을 벌였다.¹⁰⁾

위에서 살펴본듯이 우리가 흔히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어린이’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발견된 역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옛이야기인 전래동화도 근대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동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 초의 일이다.

8) 김보영, “‘아이’에서 ‘어린이’로”,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 사람과 사회 이야기(서울 : 역사비평사, 1998), p.175.

9) Philippe Ariès, *Centuries of Childhood :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R. Baldick (trans), Vintage Books, 1962. ‘아동’과 ‘문학’이 근대에 ‘발견’된 개념임을 밝히는 논의로는 가라타니 고진(박유하 역)의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1997)을 참고할 수 있다. 엄희경,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 나타난 호랑이상,” 동화와 번역(전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제5집(2003), p.6 재인용; 김보영, 윗글, pp.175-176.

10) 김보영, 전계서, pp.178-183.

Ⅲ. 전래동화의 구조

전래동화는 설화를 어린이에 맞게 변용한 것이므로 전래동화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배열되어 있는 양태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에 배열되어 있는 각 부분들이 일련의 법칙을 갖고 연결된다면 비로소 구조를 가진 전체가 된다. 어떤 구조물에 있어서 서로 이웃해 있는 요소들은 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구조를 분석하면 변할 수 없는 것, 즉 본질적인 것을 변할 수 있는 것, 즉 종속적인 것과 구별할 수 있다.

설화로부터 이러한 구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은 러시아의 프로프(V. Propp)에서 시작했으며, 1928년 「민담의 형태학」에서 프로프는 전혀 다른 모티브들로 되어 있으면서도 구조가 동일한 것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의 '잉어 색시'와 '선녀와 나무꾼' 두 전래동화의 구조를 살펴보자.

〈표 1〉 잉어색시와 선녀와 나무꾼의 구조 비교

〈잉어 색시〉	〈선녀와 나무꾼〉
① 어부가 잉어를 잡았다가 놓아준다.	① 포수에게 쫓긴 사슴을 나무꾼이 숨겨준다
② 잉어는 처녀로 화하여 어부의 아내로 된다.	② 선녀의 깃옷을 감추고, 승천 못한 선녀와 결혼한다.
③ 자녀를 가진다.	③ 자녀를 가진다.
④ 목욕 도중 엿보지 말라는 타부를 어긴다.	④ 아들을 셋 낳기 전에는 깃옷을 주지 말라 는 타부를 어긴다.
⑤ 처는 불신을 책망하고 자녀와 함께 돌아간다.	⑤ 선녀는 깃옷을 입자 자녀를 데리고 올라 간다.
⑥ 돌아온 용녀와 함께 어부도 같이 간다.	⑥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승천하여 선녀와 재회한다.

위 전래동화는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는 동일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등장인물은 가변적이거나 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는 불변적이다. 등장인물은 구조를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없으나 불변적인 행위 자체는 구조를 형성한다.¹¹⁾

프로프는 불변적인 기본적 요소를 기능(function)이라고 하는데, 그의 구조분석에 의하면, 민담에서 등장인물의 기능의 수는 31개로 다음과 같다. 이는 각 기능의 본질에 대한 간결한 요약과 한 단어로 단순화한 정의로 표시된다.¹²⁾

1.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재중이다. 정의: 부재
2. 주인공에게 금지의 말이 주어진다. 정의: 금지
3. 금지가 위반된다. 정의: 금지의 위반
4. 악한은 정찰을 시도한다. 정의: 정찰

11) 曹喜雄, 說話學綱要(서울 : 새문사, 1989), pp.50-51.

12)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역(서울 : 새문사, 1987), pp.30-67.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1호)

5. 악한은 그의 희생자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한다. 정의: 정보전달
6. 악한은 희생자나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속이려 든다. 정의: 속임술
7. 희생자는 속임술에 빠져서 본의 아니게 그의 적을 돕게 된다. 정의: 연루
8. 악한이 가족 중의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힌다. 정의: 가해
- 8a.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거나 갖기를 원한다. 정의: 결핍상황
9. 불운이나 혹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소망이 알려지고, 주인공에게 부탁과 명령이 전달되며, 사람들은 그를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가게 한다. 정의: 중개, 연결된 사건
10. 탐색자는 대항행동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결심한다. 정의: 대항행동 개시
11. 주인공이 집을 떠난다. 정의: 출발
12. 주인공이 시험되고, 심문받으며, 공격받는데, 그로 인해 주인공이 마법도구를 취득하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조력자를 얻는다. 정의: 증여자의 첫 기능
13. 주인공은 미래의 증여자의 행동에 반응한다. 정의: 주인공의 반응
14. 주인공이 마법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의: 마법도구의 수령
15. 주인공은 탐색의 대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거나 인도된다. 정의: 두 왕국 사이로의 공간 이동이나 안내
16. 주인공과 악한이 직접 싸운다. 정의: 투쟁
17. 주인공은 징표를 받는다. 정의: 징표, 표식
18. 악한이 퇴치된다. 정의: 승리
19. 최초의 불행이나 결여가 해소된다. 정의: 불행 또는 결핍의 청산, 해소
20. 주인공이 돌아온다. 정의: 귀환
21. 주인공이 추적당한다. 정의: 추적
22. 주인공이 추적자들로부터 구출된다. 정의: 구조
23. 주인공이 아무도 모르게 집이나 다른 나라에 도착한다. 정의: 몰래 도착
24. 가짜 주인공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 정의: 부당한 요구
25. 주인공에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 정의: 시험, 어려운 과제
26. 과제가 해결된다. 정의: 해결
27. 주인공이 알려진다. 정의: 인지(認知)
28. 가짜 주인공, 혹은 악한의 정체가 폭로된다. 정의: 자백, 폭로
29. 주인공에게 새로운 모습이 주어진다. 정의: 변신
30. 악한이 처벌된다. 정의: 처벌
31. 주인공은 결혼하고 왕좌에 오른다. 정의: 결혼

위의 31개 기능이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영역을 이루며, 이 전체 영역은 기능을 수행하는

등장인물과 대응된다. 그것이 행동영역이다. 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영역이 있다.¹³⁾

1. 악한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악한 행위 ; 주인공과의 싸움이나 기타 투쟁 형태
2. 증여자(공급자)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마법도구를 전달하기 위한 예비 교섭 ; 주인공에게 마법 도구를 공급함
3. 조수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주인공의 공간 이동 ; 불행이나 결여의 해소 ; 추적으로부터 구출함 ; 어려운 과제의 해결 ; 주인공의 변신
4. 공주(찾으려는 인물)와 그녀 부친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어려운 과제를 부과함 ; 표식하기 ; 폭로 ; 인지 ; 두 번째 악한 벌주기 ; 결혼
5. 파견자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파견
6. 주인공의 행동 영역, 구성성분 : 탐색에의 출발 ; 증여자의 요구에 반응 ; 결혼
7. 가짜 주인공의 행동 영역,

그런데 이러한 행동 영역이 등장인물과 정확히 대응할 수도 있고, 한 인물이 몇 가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하나의 행동 영역이 여러 등장인물에 할당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설화는 31개의 기능과 7종의 등장인물의 행동영역과의 조합이다.

I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분석

구전설화는 구연자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가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구연자의 기억의 정도나 전승 범위에 따라 다양한 각편이 존재한다. 전래동화도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므로 다양한 각편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대표적 이본인 오다쇼고(小田省吾)의 <虎の天罰(천벌 받은 호랑이)>, 어효선의 <해님 달님>, 이원수의 <해님과 달님>, 김성도의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 이원수·손동인의 <해님과 달님>, 강태형의 <해님과 달님>의 6편의 이본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각편의 줄거리

가. 오다쇼고(小田省吾)본 : 虎の天罰(천벌 받은 호랑이)¹⁴⁾

한국의 전래동화가 처음으로 동화집으로서 편찬된 것은 1924년 9월에 발행된 朝鮮民俗資料 第二篇『朝鮮童話集』이 최초이다. 이 『조선동화집』에 게재된 25편의 전래동화¹⁵⁾ 가운데 <해님과

13) 블라디미르 프로프, 상계서, pp.82-84.

14) 조선총독부 편, 권혁래 역주, 조선동화집: 우리나라 최초 전래동화집(1924년)의 번역·연구(서울 : 집문당, 2003), pp.136-140.

달님>은 <虎の天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천벌 받은 호랑이(虎の天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옛날,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오빠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두 오누이를 키우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굶은 일을 하였고, 아이들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2. 오늘도 또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러 이웃마을로 가며,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콩죽으로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3.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 산을 넘는데, 이 길은 무언가 소름끼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4. 갑자기 큰 바위 그늘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그걸 여기 내려놓으면 살려준다고 하기에 어머니는 콩죽이 담긴 그릇을 던져 놓고 도망쳤습니다.
5. 호랑이가 또 쫓아와서 오른팔을 때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오른팔을 내주었고, 또 나타나 왼팔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왼팔을 내주었습니다.
6. 호랑이가 또 쫓아와서 왼발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다리를 잡아먹히면 집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울며 주저앉자,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7. 그래도 호랑이는 양이 차지 않았는지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 생각하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8.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호랑이는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해서 목이 쉬어서 그렇다고 하고, 손도 엄마 손이 아니라고 하자 호랑이는 먼지를 뒤집어써서 더러워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 호랑이가 손에 기름을 칠하고 손을 다시 내밀자, 여동생이 그 손을 엄마 손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들어온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10. 엄마옷을 입었지만 엄마가 아니란 것을 알아차린 아이들은 무서워서 변소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밖으로 나와서 우물 옆에 있는 계수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1. 호랑이는 아이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무심코 들여다 본 우물에서 아이들이 비친 모습을 보고는 나무 위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
- 15) 『조선동화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水中の珠(물 속의 구슬), 2. 猿の裁判(원숭이의 재판), 3. 瘤とられ・瘤もらひ(혹 떼이기, 혹 받기), 4. 酒きらひの兎と龜と蟾(술이 싫은 토끼와 거북과 두꺼비), 5. 寒中の覆盆子(한 겨울의 산딸기), 6. 黒い玉と黄い玉(검은 옥과 붉은 옥), 7. 狢い兎(교활한 토끼), 8. 物いふ龜(말을 하는 거북이), 9. 天女の羽衣(선녀의 날개옷), 10. 馬鹿の物しり(바보 점쟁이), 11. 龜のお使い(심부름꾼 거북이), 12. 蟾の報恩(은혜 갠 두꺼비), 13. 物好きな盲者(이야기 좋아하는 장님), 14. 鶺鴒の鐘つき(종을 친 까치), 15. 三つの珠(세 개의 구슬), 16. 恩知らずの虎(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17. 親を捨てる男(어머니를 버린 남자), 18. 蛙と狐の智慧くらべ(개구리와 여우의 지혜 겨루기), 19. 金棒銀棒(금방망이 은방망이), 20. 哀れな兒(불쌍한 아이), 21. 臆病な虎(겁쟁이 호랑이), 22. 三つの寶(세 개의 보물), 23. 大蟹退治(큰 게를 물리친 돼지와 곰), 24. 虎の天罰(천벌 받은 호랑이), 25. 怒夫と興(夫놀부와 흥부).

12. 호랑이가 올라가는 방법을 오빠에게 묻자 영리한 오빠는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 없자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어려 생각이 부족해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올라왔다고 대답했습니다.
13.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자 오누이는 하느님께 “제발 불쌍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14. 하늘에서 새 밧줄이 내려오자, 밧줄을 붙들고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5. 호랑이도 아이들과 똑같이 기도하자 낡은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습니다.
16. 호랑이가 떨어진 곳에는 수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줄기에 호랑이피가 물들었습니다. 그 뒤로 수수의 줄기가 빨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7.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 어효선본 : <해님 달님>¹⁶⁾

1. 아주 먼 옛날, 외로운 산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어린 두 남매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매일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마음씨 착한 세 식구는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2. 그날도 어머니는 남매에게 “문 꼭 닫고 집 보라. 낯선 사람에겐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호랑이가 사람 시늉을 하고 마을로 내려 온다더라”고 타이르고, 이른 새벽 열 고개 넘어 부잣집에 일을 해 주러 집을 나섰습니다.
3.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덧 해님이 서산마루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심이 후한 주인마님은 어린 남매에게 주라고 큰 떡을 아홉 개나 싸 주었습니다.
4. 한 고개에 다다르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품속에 든 것을 내주지 않으면 잡아먹겠다고 하여, 떡 한 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두 번째 고개에 나타나서 떡 한 개를 빼앗기고, 세 번째, 네 번째... 아홉째 고개에서 어머니 품속의 떡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열 고개에 이르렀을 때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5.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벗겨 걸쳐 입고 남매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데 지친 남매는 굶주림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돌아와서 “문 열어라 엄마 왔다”고 했습니다.
6.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자 종일 밖에서 일했더니 피곤해서 목이 쉬었다고 하고, 손이 거칠다고 하자 종일 막일을 해서 손이 터서 그렇다고 하며, 문틈으로 치맛자락을 넣어 보냈습니다.

16) 어효선 채집, “해님 달님,” 유네스코 아시아 문화센터 편,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래동화 6(서울 : 일지사, 1982), pp.5-14.

그럴싸한 호랑이의 속임수에 넘어간 남매가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옷을 입은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7. 치맛자락 밑으로 늘어진 호랑이의 꼬리를 보고는 호랑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에 우물결의 큰 미루나무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8. 남매를 찾던 호랑이는 목이 말라 우물에 갔다가 우물에 비친 남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9. 호랑이가 올라가는 방법을 묻자 두 남매는 기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고 우스워 동생이 오빠에게 귓속말로 “도끼로 나무줄기를 찍어 올라오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라고 소곤거리는 소리를 호랑이가 들었습니다.
10. 호랑이가 잡으러 올라오자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남매는 옥황상제님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거든 든든한 동아줄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11.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오자 남매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 두 남매를 놓친 호랑이도 똑같은 기도를 올리자 역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얼마 안 가서 떨어져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습니다.
13. 하늘나라로 올라간 두 남매는 옥황상제의 명으로 오빠는 해님, 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14. 하루를 돌고 나자 동생이 밤길을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고 하여 오빠는 바꾸어 주었습니다.
15. 해님이 된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빛을 보내어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17. 지금도 달님은 쳐다볼 수 있는데, 해님은 눈이 부시어 잠시도 쳐다볼 수 없으며, 그때 묻은 호랑이 피 때문에 지금도 수수깡이 빨갱습니다

다. 이원수본 : 〈해님과 달님〉¹⁷⁾

1.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2. 하루는 품삯으로 얻은 메밀떡이 담긴 함지를 이고 돌아오다가 고갯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3. 호랑이는 메밀떡 한 개를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한 개를 주었습니다. 다음 고개에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메밀떡 한 개를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하기에 또 한 개를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호랑이가 나타날 때마다 메밀떡을 한 개씩 주어 메밀떡이 한 개도 남지 않았읍니다.
4. 그런데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왼팔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왼팔을 주고, 또 나타나 바른팔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바른팔을 주고, 또 나타나 바른발을 주면 안 잡아먹는

17) 이원수, “해님과 달님.” 한국의 어린이동화 9(서울 : 계몽사, 1987), pp.4-29.

- 다고 해서 바른발을 주고, 왼발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해서 왼발을 주어서 아주머니는 굴러가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얼른 뒤쫓아와서 아주머니를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5. 그 시간에 어린 아들과 딸은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6.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자 온종일 명석에 보리를 넣어놓고 쪄아 먹으려는 새를 쫓아서 목이 쉬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보라고 하여 손을 보고는 어째서 이렇게 꺼칠꺼칠하고 털이 많으냐고 하자 온종일 빨래하고 풀까지 먹여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두 남매가 문틈으로 밖을 보니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7. 놀란 아이들은 우물가의 높은 나무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8.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자 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간 호랑이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집둘레를 빙빙 돌다가 기운 빠진 호랑이는 물을 먹으려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우물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호랑이는 아이들이 우물에 빠져 있는 줄 알고 건져먹으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 나무 위의 남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9. 그제야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라다 보고 올라가는 방법을 묻자 사내아이는 참기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올라올 수 없자 호랑이가 다시 사정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이동생이 도끼를 얻어 찍어놓고 올라오면 된다고 바른 대로 말했습니다.
 10. 호랑이가 아이들을 쫓아 자꾸자꾸 올라오자 하느님께 도와주시려거든 쇠사슬을 내려주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밧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11. 하늘에서 쇠줄이 내려오자 남매는 그 쇠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2. 호랑이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므로 하느님이 벌을 내릴 줄 알고, 오누이와 정반대로 도와주시려거든 썩은 밧줄을 내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13. 하느님은 원하는 대로 썩은 밧줄을 내려주었고, 호랑이는 썩은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 하늘나라 입구에서 밧줄이 끊어져 떨어져 죽었습니다.
 14. 호랑이가 떨어진 곳은 수수밭으로, 지금도 수수깥 속이 붉은 것은 그 때 호랑이피가 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씨 나쁜 호랑이는 하느님의 무서운 벌을 받고 무참히 죽은 것입니다.
 15. 한편, 하늘나라에 올라가 오누이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느님의 명으로 오빠는 썩썩한 해가 되고, 누이는 조용한 달이 되어 서로 헤어져 살았습니다.
 16. 누이가 밤이 무섭다고 오빠에게 사정하자, 오빠는 하느님께 나아가 누이동생의 소원을 말하자, 하느님이 허락하여 오빠는 밤길을 가는 달이 되고, 누이는 낮길을 가는 해가 되었습니다.
 17. 그러나 누이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창피해서 빛을 쏘아 보내어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가 눈이 부신 것은 누이동생이 내쫓는 화살같은 빛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 김성도본 :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¹⁸⁾

1. xxx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머니와 어린 세 딸이 살았습니다. 딸 이름은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였습니다.
2. 어느 날, 어머니가 산 고개를 넘어 멀리 가면서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고약한 호랑이가 찾아올 지도 모르니 꼭 내말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담 밖으로 지나가다가 어머니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던 호랑이는 어머니가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4.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잔칫집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쉬었다고 했습니다. 달순이가 눈을 보여 달라고 하자, 눈이 빨갛다고 하니, 호랑이는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별순이가 손을 보여 달라고 하자 호랑이는 발을 내밀었는데, 손이 노랗다고 하자 외갓집에 가서 벽을 발랐다고 하니 모두 속아 넘어가서 빗장을 빼고 문을 열어 주었더니, 호랑이가 쑥 들어왔습니다.
5. 호랑이는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6. 집에 질린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뒤란으로 도망을 쳐서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7. 세 아이를 찾던 호랑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8. 호랑이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묻자, 달순이가 참기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미끄러워 올라갈 수 없던 호랑이가 다시 묻자 별순이가 도끼로 찍어 발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9. 호랑이가 도끼로 찍으며 올라오자 세 아이는 하느님께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 보내달라고 빌었습니다.
10. 세 아이가 눈을 뜨니, 하늘에서 새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고, 세 아이들이 그 줄에 매달리자 동아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1.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잡고 올라간 동아줄은 썩은 것이어서 한참 올라가던 줄이 끊어져서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2. 지금도 수수 밭동이 얼룩져 있는 이유는 그때 호랑이 피가 묻어서 그렇습니다.
13. 하느님은 세 아이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해순이는 해가 되고, 달순이는 달이 되고, 별순이는 별이 되었답니다.

18) 김성도,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 김성도 등, 황소가 된 사람 외, 한국교육동화 3 : 전래동화편(서울 : 금성출판사, 1990), pp.6-15.

다. 이원수·손동인 본 : <해님과 달님>¹⁹⁾

1. 옛날 어느 시골 외딴집 어린 아들딸을 데리고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과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 주러 다녔습니다.
2. 그런데 하루는 어두워지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밤엔 산길에 호랑이가 잘 나온다는데”하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3. 이때 갑자기 문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이동생이 문을 열러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오빠는 목소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누이동생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4.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자, 감기가 들어서 목이 쉬었다고 하며, “옷을 봐야만 알겠니?” 하며, 팔이 쑥 들어왔는데, 오누이가 가까이 가서 보자 옷은 틀림없지만 손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손에는 털이 없다고 하자,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서 그렇다고 하니, 오누이는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5. 어머니는 저녁을 짓는다고 부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6. 엄마가 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부엌을 들여다 본 오빠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호랑이임을 알았습니다.
7. 오빠는 누이동생을 데리고 뒤꼍으로 가서 우물가의 커다란 미루나무로 올라갔습니다.
8. 호랑이는 산 고갯길에서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를 잡아먹고 저고리와 치마를 제가 입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9. 호랑이가 아이들을 먹어야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다 마침 달밤이어서 마당에 비친 나무그림자에 아이들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10. 호랑이가 아까처럼 어머니의 말소리를 흉내 내어 빨리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11. 호랑이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묻자 오빠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미끄러지는 호랑이를 보던 철없는 누이동생이 도끼로 발 디딜 자국을 찍어 놓고 올라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건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인데 그걸 모르고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 누이동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12. 호랑이가 점점 가까이 올라오자 오빠는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동아줄을 내려서 끌어올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13. 호랑이의 앞발이 오누이의 다리를 잡을 듯 잡을 듯 할 때,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고, 오누이가 그 줄 끝에 매달리자 동아줄은 오누이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14. 호랑이는 오누이를 놓친 것을 분해하다가 오누이처럼 기도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잡고 올라간 동아줄은 썩은 것이어서 얼마동안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져서 호랑이

19) 이원수·손동인 엮음, 한국전래동화집 6, 창비아동문고 28(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0), pp.199-206.

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5. 호랑이가 떨어져 머리를 깨고 죽은 곳은 수수밭이었습니다. 수수밭에는 호랑이의 피가 튀어 수수나무에도 벌겍게 피가 묻었습니다.
16.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어서 한 곳에 같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해는 낮에만 다니고, 달은 밤에만 다녔습니다. 누이는 밤에 다니는 것이 무서워 오빠에게 해가 되고 싶다고 말했더니, 오빠는 누이동생의 소원대로 해 주어서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동생은 해가 되었습니다.
17. 누이동생은 밝은 세상에 다니는 것이 무섭지 않아 좋았으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화살같은 센 빛을 쏘아 보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18. 달은 쳐다보아도 괜찮은데, 해는 쳐다보면 눈이 부시고 아픈 것은 누이동생의 화살 같은 빛 때문이고, 수수대 속에 빨간 빛깔이 있는 것은 그때 호랑이 피가 묻은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 강태형본 : <해님과 달님>²⁰⁾

1.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시골 외딴 집에 어린 아들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윈 홀어머니는 날마다 남의 집에 허드렛일을 해주어 다녔어요.
2. 하루는 해가 저물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누이는 마루에 앉아 “요즘엔 밤에 호랑이가 잘 나온다는데...”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3. 그때 대문 흔드는 소리가 났어요.
4.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쉬지 않았다고 하자, 감기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며 옷을 보라고 팔을 내밀었어요. 저고리 소매는 튼튼없지만 손은 엄마 손이 아니어서 엄마 손엔 털이 없다고 하자,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져 그렇다고 하자, 오누이는 그렇게 믿고 대문을 열어 주었어요.
5. 저녁밥을 지어준다면 엄마는 오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을 가만히 들여다 보던 오빠는 밥을 짓고 있는 것은 엄마의 치마저고리를 입은 호랑이인 것을 알았어요.
6. 오빠는 얼른 누이동생을 데리고 뒤꼍으로 가 우물가의 커다란 미루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7. 방안을 뒤지다가 오누이를 못찾은 호랑이는 뒤꼍으로 나와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에 아이들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8. 호랑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어떻게 올라갔는지 묻자 오빠는 참기름을 발랐다고 했어요. 호랑이가 나무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있던 누이동생이 “도끼로 디딜 자국을 찍어 놓고 올라오면 될 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9. 호랑이가 도끼로 자국을 내어 잡으러 올라오자 하느님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동아줄을 하나 내려달라고 빌었어요.

20) 강태형 엮음, 해님과 달님, 한국전래동화 제7권(서울 : 웅진출판주식회사, 1994), pp.2-31.

10.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으려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요. 오누이가 동아줄을 잡아 동아줄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11.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동아줄을 잡아 동아줄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12. 그러나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얼마 올라가지 않아 동아줄이 딱 끊어져 호랑이는 수수밭에 쳐 박혀 죽고, 호랑이의 피가 수수대를 붉게 물들였어요.
13.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14. 누이동생은 어두컴컴한 밤이 무서워 해가 되고 싶다고 하니, 오빠가 누이동생의 소원을 들어 주어 오빠는 달님이 되고, 누이동생은 해님이 되어 오늘도 낮과 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2. 이본의 구조 분석

이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구조를 프로프의 기능(func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배경과 주인공의 등장 - (2)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함(금지) - (3)어머니의 출타(부재) - (4)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힘(가해) - (5)호랑이가 아이들을 잡으러 집에 음(정찰) - (6)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호랑이의 속임수, 아이들의 연루) - (7)호랑이에게 문을 열어줌(금지의 위반) - (8)아이들이 나무위로 도망 - (9)아이들을 찾음(정보 입수) - (10)호랑이가 잡으러 나무위로 올라옴(추적) - (11)아이들의 승천(구조) - (12)호랑이의 추락(처벌) - (13)오빠는 해, 동생은 달이 됨(증거) - (14)해와 달을 서로 바꿈’의 14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등장인물의 기능을 중심으로 6편의 이본을 분석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해님과 달님> 이본의 구조 분석

	오다 쇼고본	어효선본	이원수본	김성도본	이원수·손동인본	갈태형본
1) 제목	虎の天罰	해님 달님	해님과 달님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	해님과 달님	해님과 달님
2)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	옛날/농촌	옛날/산골	옛날/어느 마을	옛날/ -	옛날/시골	옛날/시골
3) 주인공	오빠, 여동생, 어머니	아주머니, 어린 두 남매	아주머니, 어린 아들 딸	어머니, 세 딸	과부어머니/ 아들 딸	어머니, 어린 아들 딸
4) 문체	-습니다	-읍니다	-읍니다	-습니다	-습니다	-어요
5) 기능						
(1)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함(금지)	0	0	-	0	-	-
(2)어머니가 잡아먹힘(가해)	이웃마을로 가는 도중 잡아먹힘/ 풍족, 원팔-오른팔 -어머니	돌아오다가 잡아먹힘/떡9개, 열고개째 어머니	돌아오다가 잡아먹힘/매밀떡 여러 차례, 원팔-오른팔-오른팔-원팔-어머니	-	- /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밤에 호랑이가 잘 나온 다며 걱정	- /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밤에 호랑이가 잘 나온다며 걱정
(3)호랑이가 집에 음(정찰)	0 / 엄마의 옷을 입음	0 / 엄마의 옷을 입음	0	0 /엄마가 당부하고 가는 소리를 엿듣고 음	0 / 엄마의 옷을 입음	0 / 엄마의 옷을 입음

(4) 어머니인지 확인(속임수)	목소리(힘든 일), 손(먼지) (2)	목소리(피곤), 손(막일), 치맛자락 (3)	목소리(새웃음), 손(빨래), 문틈으로 확인(3)	목소리(노래), 눈(고춧가루), 손(벽을 바름) (3)	목소리(감기), 옷(맞음), 손(일을 많이 함)(3)	목소리(감기), 손(일) (2)
(5) 문을 열어줌(금지의 위반)	0 / 여동생	0 / 여동생	- (문 열지 않음)	0	0	0 / 오누이
(6) 나무 위로 도망	우물 옆 계수나무	우물 걸 미루 나무	우물가의 높은 나무	소나무	우물가 미루나무	우물 옆 미루나무
(7) 우물에 비친 모습으로 아이들 찾음(정보 입수)	0	0	0 (물에 빠진 줄 알다)	0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
(8) 여동생이 방법을 가르쳐 줘서 호랑이가 울라움(연루,추적)	여동생이 대답	여동생이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음	누이동생이 말해 줌	별순이	누이동생이 말해 줌	누이동생의 말을 엿들음
(9) 기도(조력자)-아이들의 승천(구조)	하느님께 동아줄 요청	육황상에게 동아줄 요청	하느님께 쇠사슬 요청	하느님께 새 동아줄 요청	하느님께 동아줄 요청	하느님께 동아줄 요청
(10) 호랑이의 기도-추락(처벌)-수숫대가 붉음(중거)	낮은 밧줄 내려움	썩은 동아줄 내려움	썩은 밧줄 기도 내려움	썩은 동아줄 내려움	썩은 동아줄 내려움	썩은 동아줄
(11) 해와 달이 됨(중거)	0	0	0	해순이는 해, 달순이는 달, 별순이는 별이 됨	0	0
(12) 서로 바꿈, 빛을 보내 쳐다 보지 못하게 함	-	0	0	-	0	0

V. <해님과 달님>의 이본 비교

1. 각편의 비교

가. 제목 비교

오다쇼고본의 제목은 <虎の天罰>인데, 이는 악용강식의 풍조 속에서 강자이지만 악한인 호랑이를 하느님이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어효선본의 제목은 <해님 달님>이고, 이원수본, 이원수·손동인본, 강태형본의 제목은 <해님과 달님>이다. 이 동화는 해와 달의 탄생에 관한 신비를 상상력의 힘을 빌어 설명하는 기원담(起源譚)에 속하므로 네편의 제목은 기원담의 종류를 암시하고 있다. <해님 달님>은 '日月'에서 보듯이 글말에 가깝고, <해님과 달님>은 입말에 가깝다. 입말에 가까운 <해님과 달님>이 구연되는 전래동화의 제목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김성도본의 제목은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인데, 이는 해와 달의 탄생에 별의 탄생을 하나 덧붙여진 것으로 후대에 생성된 설화에 바탕을 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해와 달과 별이 탄생하기도 전에 아이의 이름에 '해, 달, 별'이 들어가는 것은 전후관계로 볼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제목이 해와 달과 별의 탄생을 암시하는 효과는 지니고 있다.

나. 배경 비교

6편이 모두 시간적인 배경은 '옛날, 아주 먼 옛날'이다. 이는 전형적인 설화의 서두 형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농촌, 산골, 시골' 등인데, 이는 지배계층이 사는 서울이나 도회가 아니라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가 산이므로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골이나 농촌이 산과 인접해 있다. 어머니가 산고개를 넘어야 이웃 마을로 갈 수 있고, 호랑이는 깊은 산에서 살고 있으니, 산골이 공간적 배경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다. 등장인물 비교

등장인물은 주인공인 아들과 딸, 조연격인 어머니, 악한인 호랑이가 등장한다.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에서만 딸 셋이고, 나머지는 아들 딸의 둘이다. 맏이인 오빠와 둘째인 여동생 가운데 속임수에 넘어가서 악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여동생이고, 막내인 별순이이다.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금지를 위반하여 호랑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4본(오다쇼고본, 어효선본, 김성도본, 이원수·손동인본)에서 여동생이고, 호랑이에게 나무에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손아래인 여동생과 막내인 별순이이다. 여기서는 연장자가 삶의 지혜가 더욱 풍부하다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사교가 녹아있다고 보아진다.

덴마크 올릭(A. Olrik)의 설화의 서사법칙에 의하면, 주인공이나 적대자가 셋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서상 우선되는 것은 제일 앞의 것이지만 서사적 전개에서는 최종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최후의 것이다.²¹⁾ <금개구리왕자>나 <장화신은 고양이>에서도 막내가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 하지만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의 경우 주인공이 셋인 이유는 단지 해와 달과 별의 탄생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셋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설화의 주인공은 외로운 상황, 혹은 결핍된 상황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님과 달님>에서도 이미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마저 집을 떠난 부재의 상태에서 악한인 호랑이와 맞닥뜨리게 된다.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다. 하지만 설화의 주인공은 사망하는 일이 없다. 힘센 악한을 만나게 되면 조력자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다. 여기서는 조력자로 하느님이나 옥황상제가 등장함으로써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동아줄에 의해 천상으로 공간이동을 하게 된다. 어효선본에서 조력자로 옥황상제가 등장하는데, 옥황상제는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로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도가사상에서 발원한 것이다. <선녀와 나무꾼>처럼 선녀가 등장하는 것은 신선사상, 즉 도가사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하느님보다는 옥황상제가 적합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옥황상제보다는 하느님이 더욱 한국적이다.

조력자인 하느님에 의해 악한인 호랑이는 천상으로 이동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추락하여 죽게

21) 조희웅, 전게서, p.52.

된다. 주인공의 자력으로 악한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악한이 처벌된다. 이 이야기는 악한은 인간이 응징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응징하므로 착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즉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라. 문체 비교

전래동화는 구전설승되던 구전설화가 문자로 정착된 것으로 음성적 변화나 표정, 몸짓 등으로 이루어진 말하는 방식이 문학적 표현에 맞도록 조직되는, 즉 구연되는 문학이다. 따라서 전래동화도 본질적으로 눈으로 읽는 문학이 아니라 귀로 듣는 문학이므로 글말, 즉 문어체보다는 입말, 즉 구어체가 듣는 이야기의 묘미를 살릴 수 있으므로 전래동화에 적합한 문체라고 하겠다. 들려주고 들으면서 마음이 가까워지고 이야기 속에 담긴 생각을 곱씹어 보면서 삶속의 진실과 슬기를 더듬어 보는 것이다.²²⁾

같은 입말이라도 전래동화가 구전설화와 다른 점은 설화를 구연할 때처럼 사투리나 비속한 용어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여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꾸고, 비속한 용어는 품위 있으며 어렵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용어로 바꾼다. 그러므로 동화작가는 어휘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본 6편 가운데 강태형본을 제외한 다섯편은 글말인 ‘-읍니다’ 또는 ‘-습니다’로 어미가 끝나고 있다. ‘-읍니다’는 1989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한글맞춤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판된 책에 나타나는데, 이는 1989년 이후에 와서는 모두 ‘-습니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읍니다’와 ‘-습니다’는 동일한 문어체이다. 전래동화의 문체는 입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즉 문장의 어미가 “-어요”로 끝나는 강태형본이 가장 좋다고 판단된다.

이원수·손동인본에서 보이는 ‘과부어머니’는 동화의 어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홀어미’의 한자말인 ‘과부(寡婦)’는 어린이들이 잘 쓰는 않는 어휘이며, 여기에 ‘어머니’를 덧붙이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과부어머니’ 대신 우리말인 ‘홀어머니’가 적합하다고 본다.

마. 기능 비교

(1)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함 - 문을 열어줌 : 금지 - 금지의 위반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 문을 꼭 잠그고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지 말라고 말을 하고 떠난다. 주인공에게 금지의 말이 부과되어 있는 것은 오다쇼고본, 어효선본, 김성도본의 3편이고, 나머지 3편은 금지가 없다. <해님과 달님>의 최초의 상황은 아버지의 부재와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결핍된 상황이지만 사이 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재난의 도래가 암시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금지의 말이 다가올 불행을 암시한다. 그리고 금지는 반드시 위반되게 된다. 이때 악한

22)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서울: (주)도서출판 보리, 1995), p.3.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물, 여기서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악한의 역할은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고 여러 형태의 불행을 야기한다. 따라서 금지의 말이 부과되어 있는 오다쇼고본, 어효선본, 김성도본의 3편이 구조가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샤를 뻬로의 <빨강 모자>의 경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집을 떠나면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는 금지의 말이 부과된다. 그러나 빨강 모자는 꽃을 꺾고 놀았으므로 금지를 위반하게 된다. 그에 대한 처벌로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동화가 끝난다. 뻬로는 위협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²³⁾ 하지만 <해님과 달님>의 이본에서는 이원수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열어주었는데도, 어느 본에서도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경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힘(虎食) : 가해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虎食) 장면은 오다쇼고본, 어효선본, 이원수본의 3편에서만 나오고, 나머지 3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잔인한 장면이므로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동화이므로 동화작가가 인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²⁴⁾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를 여윈 아이들은 어머니가 호식당함으로써 양친이 부재하는, 아이들에게 결핍된 상황이 강화된다. 따라서 서사적으로도 유용한 장치가 된다. 아울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설화에도 어머니가 호식당하는 장면이 간략한가, 상세한가의 차이만 있을 뿐 나타나기는 거의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수·손동인본과 강태형본에서는 어머니가 호식당하는 장면은 없으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밤에 호랑이가 잘 나온다고 오누이가 걱정하는데, 이것이 장차 호랑이가 출현할 것이며,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위해를 당했음을 암시하는 장치가 된다.

오다쇼고본은 어머니가 이웃마을로 가는 도중에 호식당하고, 어효선본과 이원수본은 돌아오다가 어스름 밤길에서 호식당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산짐승이 밤에 주로 많이 움직이므로 호랑이가 나타나는 때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가 진 밤길이 적절하다고 파악된다.

(3) 호랑이가 집에 움 : 정찰

악한은 어린애나 귀중한 물체 등을 찾기 위해 정찰을 시도한다. <해님과 달님>에서 악한인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집으로 온다. 이때 호랑이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오다쇼고본과 어효선본, 이원수·손동인본, 강태형본에서는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타난다. 그러나 이원수본과 김성도본에서는 변장이 없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원수본에서는 문틈으로 호랑이임을 확인하는 순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아이들이 나무 위로 숨는다. 김성도본에서

23) 김정란, “설화의 동화화에 대한 연구(1) : 뻬로의 「빨강 모자 Le Petit Chaperon Rouge.」 동화와 번역(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제1집(2001), p.37.

그림형제는 <빨강 모자>의 마지막에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의 끝부분을 보태서 늑대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맺었다.

24) 임희경, 전계서, p.12 참조.

는 어머니를 호식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옷을 입고 나타날 수 없다.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원수·손동인본과 강태형본에서는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지만, 호랑이가 어머니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극적 긴장감을 고조함과 아울러 어머니가 호식당했음을 암시하는 장치가 된다.

(4) 어머니인지 확인 : 호랑이의 속임수, 아이들의 연루

집에 당도한 호랑이는 동물 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악한인 호랑이는 속임수를 쓰고 희생자인 아이들은 속임수에 당하여 무심결에 적인 호랑이를 돕는 행위를 하게 된다. 즉 문을 열어주게 된다. 이는 불행이 다가옴을 암시하는 장치가 된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어머니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오다쇼고본과 강태형본에서는 목소리와 손의 2가지로 확인하는데 비해, 나머지 4본에서는 목소리와 손 외에 치맛자락(어효선본), 문틈으로 보고 확인(이원수본), 눈(김성도본), 옷(이원수·손동인본)의 3가지로 확인하는데, 두 단계를 거쳐 확인하는 것보다 세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독자가 볼 때 더욱 신중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든다.

일반적으로 설화에서 반복은 세 번 거듭됨으로써 사건의 강도가 더해진다. <백설공주>에서도 새 왕비의 세번째 시도인 독이 든 사과를 먹고는 쓰러지게 된다. <해님과 달님>에서도 어효선본과 김성도본, 이원수·손동인본에서는 두번째까지는 미심쩍어 하다가 세번째는 어머니가 맞다고 확신하고 속임수에 넘어가 문을 열어주었고, 이원수본에서는 문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5) 나무 위로 도망 - 아이들을 발견 : 정보 입수

호랑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부엌으로 간 사이에 아이들이 나무위로 도망함으로써 아이들을 잡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리하여 악한인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정찰을 시도한다. 아이들이 숨은 곳은 김성도본의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물가의 나무 위이다. 그런데 나무의 종류는 계수나무(1), 미루나무(3), 높은 나무(1)이다.

호랑이가 아이들을 찾게 되는 계기는 우물에 비친 모습(오다쇼고본, 어효선본, 이원수본, 김성도본)이나 달빛에 비친 그림자(이원수·손동인본, 강태형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물가의 나무 위라면 우물에 비친 모습으로 찾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우물물에 비친 모습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우물가의 나무이어야 할 당위성은 없기 때문이다. 김성도본에서는 소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우물에 비친 모습으로 아이들을 찾는다. 소나무가 우물가에 있다는 언급이 없는데, 우물에 비친 모습이 거론되는 것은 긴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원수본에서는 호랑이가 우물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우물에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건져서 먹

을까를 궁리하는데, 이는 호랑이를 어리석게 희화한 표현이라고 보아진다.

(6) 호랑이가 잡으려 음 - 아이들의 승천 - 호랑이의 추락 - 수숫대가 붉음 : 추적 - 구조 - 처벌 - 증거

악한인 호랑이가 도끼를 짚어가며 주인공을 추적해 잡아먹으려고 나무위로 올라오자 아이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극한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나무는 지상에 높이 솟아 있으므로 신화의 세계에서는 흔히 지상계와 천상계를 이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도 태백산 신단수(神檀樹) 아래인 것이 그 보기이다. 아이들이 나무 위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늘나라뿐이므로 하느님께 하늘나라로 이동할 도구인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옴으로써 주인공인 오누이는 호랑이의 추적으로부터 구출된다. 오직 이원수본에서만 쇠사슬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배경이 산골이나 농촌이므로 쇠사슬보다는 굵고 튼튼하게 끈 줄인 동아줄이 조화를 이루는 소품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많은 설화가 주인공이 악한의 추적에서 구조되면서 끝이 난다. 만약 주인공이 여자를 구출해 왔다면 그녀와 결혼한다.²⁵⁾ 채록된 설화 가운데 실제로 여기서 끝난 경우도 더러 접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목도 <수숫대가 빨강게 된 내력>이나, <수숫대가 빨간 유래>이다.²⁶⁾ 호랑이의 피의 붉은 색이 수수줄기가 붉은 것에 연결되어 수숫대가 붉은 이유를 설명하는 기원담이 되었는데, 이는 신화의 설명체계가 감각적 직관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설명체계를 보여준다.²⁷⁾

그리고 악한인 호랑이에게는 하느님이 썩은 동아줄을 내려줌으로써 아이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동아줄이 끊어져 수수밭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으로 악한이 퇴치된다. 인간의 자력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조력자인 하느님에 의한 징벌이다. 그림형제의 <빨강 모자>에서는 악한인 늑대에 대한 처벌이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인 사냥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가 된다. <해님과 달님>에서는 인간에 의한 구원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절대자에 의해 구원될 것이라는 민중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이므로 여섯 본 모두 여기서 끝을 내지 않았다.

(7) 오빠는 해, 누이는 달이 됨 - 서로 바꿈 : 증거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25) 블라디미르 프로프, 전게서, p.61.

26) 안금옥 구술, “수숫대가 빨강게 된 내력”, 입재해, 김영숙, 최중호, 서미주 채록, 『한국구비문학대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설화 36, ; 임요금 구술, “수숫대가 빨간 유래”, 최내옥, 김근태, 권선옥 채록, 『한국구비문학대계』, 전남 장성군 남면 설화 15.

27) 김현자,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엘리야테와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종교학연구(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제 20집(2001, 12), p.47.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해와 달의 탄생에 관한 신비를 설명하는 기원담, 유래담의 역할을 한다. 근대의 과학이 필연적 관계들을 추상적 개념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추상의 과학이라면, 신화는 구체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필연적 관계들을 설명하는 구체의 과학이라고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했듯이,²⁸⁾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간 증거로서 구체적인 해와 달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감각적 직관과 상상력의 세계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²⁹⁾

그런데 한 편의 옛이야기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님과 달님〉에서는 지상의 붉은 수수대와 천상의 해와 달 두 부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옛이야기는 수수대가 붉은 유래담에 해와 달의 유래담이 첨가된 것이라 여겨진다.

오다쇼고본과 김성도본은 오빠가 해가 되고 여동생이 달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나머지 4편에서는 달이 된 여동생이 밤길이 무섭다고 바꾸기를 원해 여동생이 해, 오빠는 달이 되고, 해가 된 여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빛을 쏘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해를 쳐다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는 변치 않는 찬란한 빛으로 인해 남성 상징, 달은 차고 이지러짐을 반복함으로 인해 여성 상징임을 미루어 볼 때,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편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의 서로 바꾸는 장면은 설화가 전승되면서 후일에 덧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악한의 추적에서 주인공이 구조되고 악한이 처벌되면 긴장이 절정에 도달하였다가 해소되는데, 그 뒤에 추가로 길게 붙으면 긴박감이 떨어져서 미적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2. 원문의 비정(比定)

이상 비교분석한 것을 토대로 가장 이상적인 원문을 비정해 보고자 한다. 해와 달의 탄생에 관한 기원을 설명해 주므로 제목은 해님과 달님, 시간적 배경은 해와 달도 없던 태초의 일이므로 옛날 아주 먼 옛날이 좋겠으며, 공간적 배경은 이웃으로 가려면 산고개도 넘어야 하고, 호랑이도 내려오고, 아이들끼리 있기에는 위험하다는 결핍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나타나고 깊은 산골 외딴집이 좋겠다. 등장인물은 어머니와 오누이, 하느님, 호랑이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의 세 딸이 등장하는 것은 후대에 생성된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력자는 도가풍의 ‘육황상제’보다는 ‘하느님’이 한국적이다. 전래동화도 구전설화와 마찬가지로 귀로 듣는 문학이므로 문체는 문어체인 ‘-습니다’보다는 구어체인 “-어요”로 하는 것이 좋겠다.

기능을 보면, 어머니가 집을 나설 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금지의 말이 부과되는 것이 앞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닥칠 것을 암시하므로 금지의 말이 없는 것보다 좋고, 어머니가 호식당하는 장면

28) 상계서, p.47.

29) 유소영, “전래동화의 유형과 제주 및 충북 중원지방의 설화,”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1999, p.260 참조.

도 아이들이 걸립된 상황을 극대화하므로 있는 것이 좋고, 호랑이가 집에 올 때에도 아이들을 속이기에 적합하도록 어머니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보다 완벽한 속임수가 된다. 아이들은 어머니인지 세 차례나 확인했음에도 속임수에 넘어갔음은 독자들에게 아이들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게 하므로 두 차례 확인하는 것보다 세 차례 확인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온 호랑이를 피해 우물가의 나무 위로 올라가갔으므로 발견할 때에도 우물 속에 비친 모습으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발견하는 것보다 적절하다. 호랑이가 추적해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제되어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극적 긴장감이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빠는 해, 여동생은 달이 된 후 무섭다고 서로 바꾸는데, 긴장이 극에 달했다가 해결되었으면 끝이 나는 것이 독자나 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좋은 원문이 되려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6편의 이본 가운데 바람직한 원문에 근접한 것은 어효선본이다. 어효선본에서 조력자인 '옥황상제'를 '하느님'으로 바꾸고, 문체를 글말인 "-읍니다"에서 입말인 "-어요"로 바꾸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서로 바꾸는 마지막 장면을 삭제한다면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이상적인 원문이 될 것이다.

VI. 결 론

전래동화는 텍스트가 유동적인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설화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사서나 부모들이 전래동화를 선정할 때 누구의 작품이 가장 좋을지,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전래동화를 이용자에게 권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다. 이 연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원문서지학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마스의 5단계법을 응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래동화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의 이본 6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목, 배경, 등장인물, 문체, 기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6편의 이본 가운데 어효선본의 본문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어효선본에서 조력자인 옥황상제를 하느님으로 바꾸고, 문체를 입말인 구어체로 바꾸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서로 바꾸는 마지막 장면을 삭제한다면 완성도가 높은 이상적인 원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전래동화를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므로 사서나 부모가 자료를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동화작가들이 우수한 동화를 생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문서지학적인 연구가 축적되고, 또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서가 내용 즉 콘텐츠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